

『武藝諸譜』의 간행과 서지학적 가치*

Publication and Bibliographic Values of *Muye Jebo* (The Martial Arts Report)

옥영정 (Ok, Young Jung)**

◁ 목 차 ▷

1. 머리말	3.2 『무예제보번역속집』
2. 『무예제보』의 편찬과 구성체제	4. 『무예제보』 현전본의 형태서지적 비교
2.1 편찬 간행과정	4.1 수원화성박물관과 프랑스
2.2 『무예제보』의 편찬체제	동양언어문명도서관 소장본
3. 『무예제보』 간행 전후의 무예서적	4.2 초간본과 중간본
간행상황	5. 맺음말
3.1 『기효신서(紀效新書)』와	<참고문헌>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 초 록 >

『무예제보』는 1598년에 한교(韓嶠 1556-1627)가 『기효신서』에서 곤봉(棍棒), 등패(藤牌), 낭선(狼筈), 장창(長槍), 당과(鎗鈹), 장도(長刀) 등 단병 무예 6기를 선정하여 해설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 연구는 새롭게 발견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무예제보』의 간행과정을 기존의 연구와 기록자료를 토대로 점검하고, 현전하는 자료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진행한 것이다. 『무예제보』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무예서이자 한글로 번역된 병법서로서 기록유산적 의미가 매우 크다. 군사학(軍史學)뿐만 아니라 서지학적인 측면에서도 임진전쟁 직후에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인쇄문화의 시발점에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며, 책계광의 『기효신서』가 유입되어 조선식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후에 간행된 역대 병법서와 간행방식, 편찬인물 등에 공통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광해군대 『무예제보번역속집』, 영조대 사도세자에 의해서 편찬된 『무예신보』,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로 이어지는 무예서의 계보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적 특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은 기존에 유일하게 알려졌던 프랑스 동양언어문명도서관(BULAC)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중간본이 초간본인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이후 120여 년이 지난 시기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책들의 서지적 특징을 세밀히 살펴 보면서 각 문헌에 담긴 내용의 실제 인출 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BULAC 및 한글박물관 소장본과의 비교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要語: 무예제보, 무예서, 훈련도감, 기효신서, 무예제보번역속집, 한교, 병법서, 인쇄문화

* 이 논고는 2018년 12월 18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조선후기 무예서 편찬과 『무예제보』의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교수(gabinja@aks.ac.kr)

투고일: 2020년 5월 10일 최초심사일: 2020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4일

서지학연구, 제82집, 75-99,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2.75>

<ABSTRACT>

Muye Jebo (*The Martial Arts Report*) was a book that Hankyo (韓嶠 1556-1627) selected, explained, translated, and published six single martial arts such as Gon Bong, Deung Pae, Nang Seon, Jang Chang, Dang Pa, Jang Do in the *Kyo Hyo Shin Seo* in 1598. This study examined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newly discovered *Muye Jebo* kept in Suwon Hwaseong Museum based on the existing study data, and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existing data. *Muye Jebo* is the first martial art book published in Chosun and translated in Korean. Not only in military studies, but also in bibliographical aspects, it is valuable as a material in printing culture at the beginning of the late Joseon Dynasty centered on the Hunryeon Dogam immediately after the Imjin War, and also significant as the first book that *Kyo Hyo Shin Seo* of Cheok Gye Gwang was introduced and converted into Chosun style. It has elements common to the later martial art books, publication methods, and compiled characters which were published afterwards and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in figuring out the lineage of the martial art books leading to *Muye Jebo Beon Yeok Sok Jip* in the period of King Gwang-hae, *Muye Shinbo* which was compiled by Sadoseja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and *Muye Do Botongji* compiled in the name of King Jeong-jo.

As a result of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bibliographic feature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llection in the Suwon Hwaseong Museum was the same as the one in the of the only known collection of the already-known French Oriental University Library of Languages and Civilizations (BULAC).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interim edition in the National Hangeul Museum was published 120 years after the first edition in the Suwon Hwaseong Museum. This study focused on making the timing of actual withdrawal of the contents of each publication more clearer by looking to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discovered books in detail. Comparisons of the collections of BULAC with those in the Hangeul Museum will help confirm the specific facts in that sense.

Key words: *Muye Jebo*, *The Martial Arts Report*, martial art book, Hankyo, Hunryeon Dogam, *Kyo Hyo Shin Seo*, *Muye Jebo Beon Yeok Sok Jip*, printing Culture

1. 머리말

『무예제보』는 1598년에 한교(韓嶠 1556-1627)가 『기효신서』에서 곤봉(棍棒), 등패(藤牌), 낭선(狼筈), 장창(長槍), 당과(鏡鈹), 장도(長刀) 등 단병 무예 6기를 선정하여 해설하고 한글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무예서이자 한글로 번역된 병법서로서 기록유산적 의미가 매우 커서 군사학, 무예사, 국어사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지학적인 측면에서도 임진전쟁 직후에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인쇄문화의 시발점에 있는 자료로서 편찬 및 간행절차가 비교적 잘 드러나고, 현존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크다.

『무예제보』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편찬배경이나 편찬과정 그리고 단병무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1994년에 박기동 선생에 의해서 프랑스 동양언어문명도서관(이하 BULAC) 소장본이 알려진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수록내용에 대한 분석과 번역, 『기효신서』와의 연관성, 단병 무예에 대한 무예사적 의미 등 그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¹⁾ 하지만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무예제보』의 실물 자료는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웠기에 책의 편찬배경이나 『무예도보통지』와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연구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행히도 최근에 수원화성박물관에서 프랑스 BULAC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추정되는 『무예제보』가 확인되었고, 연구과정에서 프랑스 BULAC 소장본 『무예제보』를 직접 확인한 터라 새로운 자료가 동일한 판본인지의 여부, 선후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자료의 중간본으로 여겨지는 한글박물관 소장의 『무예제보』까지 지난 2018년 1월에 확인하였기에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를 소개하고 초간본 및 중간본의 가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무예사의 역사에서 『무예제보』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인쇄문화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되짚어 보는 의미에서, 간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배경적인 사항과 간행과정, 그리고 간행 전후의 무예서 간행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와

1) 『무예제보』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요 논고를 작성시기에 따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박기동,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8호(강원대체육과학연구소, 1994).
 심승구, “조선시대의 무예사 연구,” 『軍史』 38(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나영일,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권 4호(1997).
 김동소, “『무예제보』 해제 색인 영인,” 『한국말글학』 17(2000).
 심승구, “한국무예의 역사와 특성,” 『軍史』 43(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노영구, “조선 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심승구, “임진왜란 중 무예서의 편찬과 의미 - 『무예제보』를 중심으로,” 『논문집』 26(한국체대, 2003).
 정혜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단병기와 『무예제보』의 간행,” 『軍史』 5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나영일, 노영구, 양정호, 최복규, 『조선중기무예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권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서울: 학고방, 2014).

기록자료를 토대로 점검하고, 현전하는 자료의 서지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무예제보』의 편찬과 구성체제

2.1 편찬 간행과정

『무예제보』의 편찬과정은 기존 군사(軍史) 연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²⁾ 정조의 『일성록』에는 장용영에서 올린 『무예도보통지』와 그 편찬경위를 작성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한글의 『무예제보』와 사도세자의 『무예신보』를 언급하고 기본적인 작성배경과 출전, 구성체제 등을 밝히고 있다.

“『무예제보』에 실려 있는 곤봉(棍棒), 등패(藤牌), 낭선(狼筈), 장창(長槍), 당과(鎗鈹), 쌍수도(雙手刀)의 6가지 기예는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나온 것인데, 선묘조(宣廟朝)에 훈련도감 낭청 한교(韓嶠)에게 명하여 그 당시 우리나라에 출정(出征)한 여러 장사(將士)에게 두루 질정(質定)한 뒤 편찬하여 간행하게 한 것이다. 선조(先朝) 기사년(1749, 영조25)에 소조(小朝) 장헌세자(莊獻世子)께서 대리청정(代理聽政)하시던 중 기묘년(1759, 영조35)에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예도(銳刀), 웨검(倭劍), 교전(交戰), 월도(月刀), 협도(挾刀), 쌍검(雙劍),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권법(拳法), 편곤(鞭棍)의 12가지 기예를 증편하여 도해(圖解)를 찬수하도록 명하여 『무예신보(武藝新譜)』를 만들었다. 내가 즉위한 초기에 기창(騎槍), 마상월도(馬上月刀), 마상쌍검(馬上雙劍), 마상편곤(馬上鞭棍)의 4가지 기예를 늘리고, 또 격구(擊毬)와 마상재(馬上才)의 2가지 기예를 덧붙이라고 명하여 모두 24가지 기예가 되었다. 검서관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에게 명하여 장용영에 사무실을 열고 상세히 살펴서 편집하고 주해를 달게 하였으며, 모든 잘못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논단(論斷)하게 하였다. 이어 장용영초관(壯勇營哨官) 백동수(白東脩)에게 명하여 기예를 살피고 시험한 다음에 인쇄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였다.”³⁾ … (후략)”

위 내용을 살펴보면 임진전쟁 이후 『무예도보통지』가 완성되기까지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바탕으로 한 단병무에서 편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선조대 한글을 통해서 편찬된

2) 특히 『기효신서』에 언급된 주요 단병무예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편찬과정에서 드러나는 무예사적 변화는 노영구, “임진왜란 이후 단병 무예의 도입과 무예서 간행 추이,” 『조선중기무예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38-46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편찬과정에 대한 이 논고의 기술에서 무예사 관련 내용은 그의 견해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3) 『日省錄』 정조 14년 경술(1790) 4월 29일(기묘).

“壯勇營進武藝圖譜通志, 武藝諸譜所載棍棒藤牌狼筈長槍鎗鈹雙手刀六技出於戚繼光紀效新書而宣廟朝命訓局郎 韓嶠遍質東征將士撰譜刊行者也先朝己巳小朝代理庶政歲己卯命增入竹長槍 旗槍 銳刀倭劍交戰月刀挾刀雙劍 提督劍本國劍拳法鞭棍十二技纂修圖解作爲新譜予即阡初命增騎槍馬上月刀馬上雙劍馬上鞭棍四技又以擊毬馬上才附之凡二十四技命檢書官 李德懋 朴齊家開局於壯勇營看詳編摩爲之疏解凡厥得失亦復論斷仍命壯勇營哨官白東脩察試技藝董飭關關其例則博考 … (後略).” 일성록(정조088), 이강욱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7.

『무예제보』, 광해군대 『무예제보번역속집』, 영조대 사도세자에 의해서 편찬된 『무예신보(무기신식)』, 이어서 정조의 명으로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로 요약되는 것이다. 『무예제보』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위치한 책으로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유입되어 조선식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도 있다.⁴⁾

『무예제보』 편찬은 선조가 1594년(선조 27) 2월 훈련도감에 특명으로 칼과 창을 다루는 병사의 기예를 다룬 『살수제보(殺手諸譜)』를 번역하도록 지시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기효신서』 중 살수무예를 언문으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한교(韓嶠)가 전담하였으며 『무예제보』를 처음 간행하고 남긴 그의 글에는 선조가 갑오년(1594) 봄에 특별히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명하여 『살수제보(殺手諸譜)』를 번역하도록 한 사실과 이듬해인 을미년(1595)에 누락된 장창 12세에 대한 보완, 1598년 여름 명나라 장수 허국위(許國威)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까지 수록하였다.⁵⁾

따라서 1594년(선조 27) 갑오년에는 『무예제보』의 1차 편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14년(숙종 40)에 새로 중간한 『무예제보』의 발문에 『무예제보』가 갑오년에 처음 이루어진 지 120년 만에 중간했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⁶⁾ 한교가 작성한 『무예제보』 卷末의 글에 따라 편간 내용을 살펴보면 1차 편찬은 살수 가운데 곤보(棍譜), 패보(牌譜), 선보(筩譜), 장창보(長鎗譜 12勢), 파보(鈚譜), 검보(劍譜)의 6가지 무예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때까지 완전한 내용을 담기 어려웠다. 『기효신서』는 난해한 병서로 무예동작과 기법을 해독하는 일이 어렵고, 보(譜)가 제대로 수록되지 않은 것이 많아 의미 파악이 곤란한 것이 많았다. 한교 또한 자주 명나라 장수에게 물음을 청하였지만 그들조차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많아 편찬은 지연되었다. 그리고 1차 편찬에는 장창 24세 중 12세밖에 실리지 않았다. 1595년(선조 28) 여름, 누락된 장창 12세의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정과 보완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왕의 독려 속에 한교는 “을미년 살수보를 번역할 때에 신이 빠뜨린 12세를 별보(別譜)로 만들고, 그 아래 부기하여 사졸에게 익히게 하였다.”⁷⁾고 밝혔다. 그리하여 갑오년 『무예제보』에 있는 12세의 장창보

4) 『무예제보』 편찬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기존 군사, 무예사 관련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무예제보』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유입된 『기효신서』가 조선식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에 주목하고 서지적인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고 편찬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5) 『武藝諸譜』 卷末 韓嶠의 글. 여기서선 선조 27년(1594) 봄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歲在甲午春, 特命訓練都監, 翻譯殺手諸譜). 당시 선조 27년 2월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절강병의 기예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1594년(선조 27) 2월에는 병조판서 이덕형이 『기효신서』의 규칙에 맞게 하는 자는 별도로 논상하고, 아울러 과거시험도 보아서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습관을 개혁하도록 하였다(『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경신).

6) 李頤命, 『疎齋集』 卷10, 武藝諸譜跋.
“... 此譜 初成於甲午之歲 重刻於再周之今年 ...”

7) 『武藝諸譜』 卷末 韓嶠의 글.
“長鎗有二十四勢 教師之所傳 只有十二勢 欠却一半 乙未年 殺手譜翻譯之時 臣以其所欠十二勢 作為別譜 附於其下 使士卒連習之 羣疑滿腹 尙未歸一 以此殺手 諸技迄無其譜 學之者徒信其手 試之者徒信其目 故正法日

를 ‘장창전보’라 명명하고, 을미년에 추가된 12세의 장창보는 ‘장창후보’라 하였다. 그 결과 곤보(棍譜), 패보(牌譜), 선보(筭譜), 장창전보(長鎗前譜), 장창후보(長鎗後譜), 파보(鈹譜), 검보(劍譜) 등 무예 6기의 편찬체제를 갖추었다. 하지만 장창세를 비롯한 의문이 적지 않았기에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1598년(선조 31) 7월에는 명군으로부터 무예를 배우게 하는 한편, 의문 나는 점을 다시 묻도록 하였다. 특히 명나라 장수 허국위에게서 『기효신서』 질정을 받되, 훈련도감의 살수 중 정예병 12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교사대로 삼아 기예를 익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교는 명나라 장수 허국위를 통하여 『기효신서』에 기록된 이화의 양가창에 대한 창술 보완을 시도하고, 격자술에서 음양수와 대소문을 정정하고 다시 찬술하여 번역하였다. 한교는 허국위와의 문답을 ‘기예질의(技藝質疑)’에 싣고, 『주해중편』에 기록된 각 기예의 대륙법(大戮法)을 권말에 붙임으로써, 『무예제보』를 마무리하였다.

결국 『무예제보』는 갑오년에 1차 편찬, 을미년 보완, 1598년 여름 허국위와의 문답을 추가하여 1598년(선조 31) 무술년 10월에 최종 완성하여 간행된 것이다. 완성본 『무예제보』에는 곤보(棍譜), 패보(牌譜), 선보(筭譜), 장창전보(長鎗前譜), 장창후보(長鎗後譜), 파보(鈹譜), 검보(劍譜)의 6기 외에 허유격문답(許遊擊問答), 주해중편교전법(籌海重編交戰法)이 추가되었고 이어 한교가 편찬 과정을 적어 국왕께 올리는 방식으로 작성한 글을 실었다.

2.2 『무예제보』의 편찬체제

이번에 새로 발견된 수원화성박물관의 『무예제보』는 1598년(선조 31) 10월에 최종 완성된 『무예제보』다. 기존에 알려진 프랑스 동양언어문명도서관(BULAC) 소장본과 동일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4장 형태적 특징에서 살펴기로 한다. 내용은 1권 1책(목록 1장, 본문 59장, 총 6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예제보』의 편찬체제는 『무예제보』의 목록, 본문에 해당하는 6기의 무예, 그리고 부록 형식으로 허유격문답·주해중편교전법과 한교의 글 등 크게 3가지 체제로 구분된다. 다음 표는 목록을 제외한 『무예제보』의 편찬체제와 내용을 기존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내용 중 살수(殺手)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권4의 내용과 비교하여⁸⁾ 살펴본 것이다.

廢而花法作矣.”

8) 노영구, “조선 중간본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 『軍史』 36(1998), 101-135.

<표 1> 『무예제보』의 편찬체제와 내용⁹⁾

주요내용		본문의 구성과 세부내용	
武藝諸譜	紀效新書 卷4	紀效新書 卷4	武藝諸譜
棍譜	大棍	大棍製(圖), 大棍解, 習法 14圖, 總訣歌, 解曰, 總步目 (卷5에 收錄)	大棍製(圖)(諺解), 棍譜(14圖), 棍勢總圖, 棍니기는譜(諺解)
牌譜	藤牌	藤牌製(圖), 藤牌解, 習法 8圖(解)	藤牌製(圖)(諺解), 牌譜(8圖), 牌譜總圖, 藤牌니기는譜(諺解)
	腰刀	腰刀製(圖), 腰刀解(解)	
	鏢鎗	鏢鎗製(圖), 鏢鎗解習法	
	長刀	長刀製(圖), 長刀解, 見習法 4圖+15圖	
	鎗鈹	鎗鈹製(圖), 鎗鈹解, 習法, 習法7圖	
笏譜	狼笏	狼笏製(圖), 狼笏解, 習法 6圖(解)	狼笏製(圖)(諺解), 笏譜(6圖), 狼笏總圖, 狼笏니기는譜(諺解)
長鎗前譜	長鎗	長鎗製(圖), 長鎗解, 習法 24圖(解)	長鎗製(圖)(諺解), 長鎗前譜(12圖), 長鎗前譜諸勢總圖, 長鎗니기는譜(諺解)
長鎗後譜			長鎗後譜(12圖), 長鎗後譜諸勢總圖, 長鎗니기는譜(諺解)
鈹譜			鎗鈹製(圖)(諺解), 鈹譜(7圖), 鈹勢總圖, 鎗鈹니기는譜(諺解)
劍譜			長刀製(圖)(諺解), 劍譜(15圖), 劍勢總圖, 劍니기는譜(諺解)
許遊擊問答			技藝質疑
籌海重編交戰法			武藝交戰法
			韓嶠 書

본문의 구성에서 『기효신서』와 다른 점은 장창전보와 후보가 나뉘어지고, 허유격문답과 주해중편 교전법이 부록형식으로 추가된 것이다. 허유격문답과 주해중편교전법 두 항목은 목록의 제목과 본문의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다. 장도와 당과의 내용을 파보와 검보로 제목을 바꾸고 장창 다음에 배치하였고 요도와 표창, 권5에 실린 총결가(總訣歌)와 해왈(解曰), 총보목(總步目) 등은 제외되었다.

『무예제보』의 본문은 곤보, 패보, 선보, 장창전보, 장창후보, 파보, 검보의 6가지 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보의 형식은 무기의 도면과 만드는 법을 한문, 언해의 순으로 두고 이어서 무기의 활용법에 해당하는 보(譜)와 기예의 도보를 그림과 한문으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각 기예의 세(勢)를 연결하여 표현한 제세총도(諸勢總圖)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앞서 수록된 한문보에 대한 언해보를 실었다. 이는 『기효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식의 편찬체제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특히

9) 『무예제보』의 편찬 체제와 내용은 박기동,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8호(강원대 체육과학연구소, 1994), 104-105. 그리고 심승구, “한국무예사에서 본 무예제보의 특성과 의의,” 『한국무예의 역사·문화적 조명』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4), 110에서 표로 작성된 바 있고, 나영일,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권 4호(1997), 17-18에서 『무예제보』를 중심으로 『기효신서』, 『무예도보통지』의 목차 순서를 비교·검토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의 논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기효신서』 권4의 소목차 내용과 순서·언해 등을 추가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제세충도는 각 기예의 자세를 모두 연결하여 표현하고 있다. 모든 세를 전후, 좌우의 각 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련의 동작으로 연결해 놓았다. 한글번역과 함께 『무예제보』의 독자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체계만 살펴봐도 『무예제보』는 한교에 의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분석된 후에 편집된 것을 알 수 있다. 『기효신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철저히 이해한 후에 편찬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는 실용적 가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3. 『무예제보』 간행 전후의 무예서적 간행상황

한편 『무예제보』의 초간본이 간행된 시기를 전후한 10여 년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한국의 인쇄문화사에서도 이 시기는 매우 특별해서 간행의 방식이나 간행주체, 서적의 주제가 제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의서류나 병가류 서적이 비교적 많이 간행되었으며 훈련도감의 인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군사서 간행의 역사에서 『무예제보』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인쇄문화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예제보』와 연관이 되는 『기효신서』와 『기효신서절요』, 『무예제보번역속집』, 『연병실기조련도식』 등의 현존본을 포함해서 아직 미발견본이거나 서명의 모호함으로 추증만 할 수 있는 책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서지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찾아서 보이고자 한다.

3.1 『기효신서(紀效新書)』와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기효신서』와 『기효신서절요』는 훈련도감자로 간행된 것으로 『무예제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훈련도감자의 사용 시기는 현종 말까지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시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훈련도감의 서적간행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1594년(선조 27) 훈련도감이 창설된 이후 선조가 이듬해(1595) 6월에 내린 명은 척계광(戚繼光)의 병법과 관련된 것으로 “진법을 연습하는(習陣) 절차는 한결같이 중국의 진법대로 하라. 또 그것으로 진서(陣書)를 만들어 인출(印出)하도록 훈련도감에 이르라.”¹⁰⁾고 하여 『진서(陣書)』를 훈련도감에서 편찬하여 간행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언급한 『진서(陣書)』는 아직까지 그 실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陣書’가 고유한 서명인지 ‘진법에 관한 서적’을 통칭한 표현인지도 알기 어렵다. 비슷한 서명으로 『진법(陣法)』과 『진설(陣說)』이 있지만 『진법(陣法)』은 성종 23년(1492)에 홍기달의 발문이 붙어서 간행된 책이고, 『진설(陣說)』

10)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무예사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바다. 이 글에서 새로이 밝히는 것은 아니며, 내용체계상으로 서지학적인 확인 작업임을 밝혀둔다.

11)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13일.

“備忘記曰 習陣節次，一依天朝陣法，且以此作陣書印出，言于訓練都監。”

은 『신기비결』과 함께 1603년에 편찬된 책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서적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진서’에 관한 실록의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효신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효신서』는 현존하고 있는 훈련도감의 목활자 인본으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책으로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병서(兵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조는 임진전쟁 때 명나라 장수들이 이 책의 방법에 의하여 평양에서 왜적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듣고 이여송(李如松)의 부하로부터 이 책을 입수하여 유성룡(柳成龍)에게 강해(講解)하도록 하였다. 전쟁 후에 훈련도감의 신설과 같은 군제개편, 훈련, 군사서 간행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다.¹²⁾

선조는 『진서(陣書)』의 간행을 명하기 넉 달 전인 선조 28년(1595) 2월 13일에 병조와 훈련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용맹 건장하고 계략이 있어 부하 거느리는 일을 감당할만한 자 10여 명을 골라서 요식(料食)을 주어가며 훈련도감에 소속시켜서 『기효신서』를 학습하게 했다.¹³⁾ 이때의 『기효신서』는 중국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조가 진서(陣書)를 만들어 인출(印出)하도록 명한 그 날에 곧 이어서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에서 뽑아 활요(撮要) 1권을 만들어서 열람에 편리하게 하려고 하며, 또 조련변진(操鍊變陣)하는 법을 뽑아 한 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¹⁴⁾을 아뢴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한 권으로 활요한 책은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기효신서절요』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조가 언급한 ‘진서’는 권수제가 『진법(陣法)』인 홍귀달의 발문본의 번각본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진법에 관한 서적’의 의미로 『연병실기』와 함께 편찬된 『조련도식』일 가능성이 크다. 실록에 “진서(陣書)를 만들어 인출(印出)하도록” 한 비망기의 하교에 따라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고, 하교를 받들어 다시 더욱 힘을 써서 완성을 독려하겠다는 뜻을 아뢰었는데¹⁵⁾ 선조 37년(1604) 12월 16일에는 『연병실기』를 우선 인출하고 『기효신서』 및 『조련도식』과 『권보』도 인출하도록 훈련도감에서 건의하여 윤허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간행된 『연병실기』로 추정되는 책은¹⁶⁾ 최근에 개인소장 자료 중에 『연병실기잡집(練兵實紀雜集)』의 서명으로 남아있는 것을

12) 이 절의 내용 중 『기효신서』, 『기효신서절요』, 『무경총요행군수지』에 관한 것은 옥영정, “군영의 활자와 인쇄문화,” 『조선 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59-261에 수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무예제보』와 관련있는 주요 문헌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 몇 가지 미발견 자료와 간행연대에 대한 재고를 추가하여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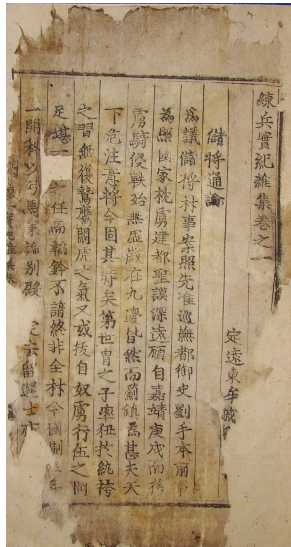
13) 『선조실록』 권60 선조 28년 2월 13일.
“... 武臣堂下 勿論時散 擇其勇健有計策 可堪領率者十餘人 使有料食 而屬於訓練都監 以學習紀效新書 如平日 兵書訓誨之例 以試能否 而以爲緩急之用 請令兵曹訓練院都監堂上 會議於備邊司 抄擇施行何如 上曰 依爲.”

14)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13일.
“訓練都監(都提調柳成龍、提調李德馨、金晬、趙徹) 啓曰都監方抄 紀效新書 爲撮要一卷 以便觀覽 又抄操鍊變陣之法 爲一書 且逐條圖畫 使之一見了然 又別圖各樣器械 而詳解行用勢譜於其下 分爲三卷 始出初草 而其間多有證正 講究曲折 未得速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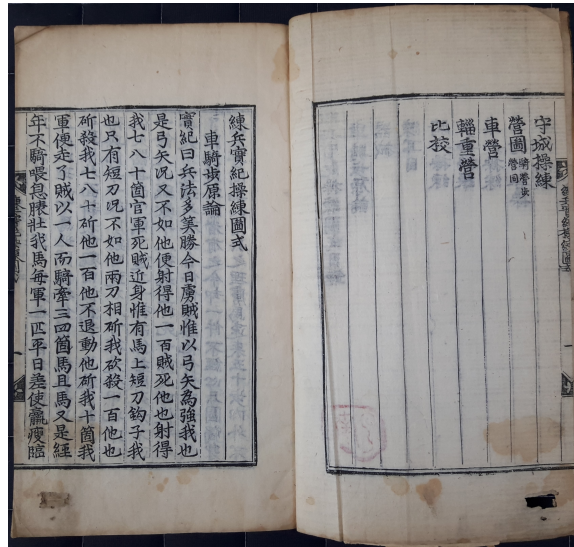
15) 『선조실록』 권64 선조 28년 6월 13일.
“今承上教, 更加着力督成之意, 敢啓.”

16) 권수제는 『練兵實紀雜集』이며 병자자체 목활자본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0항 21자의 판식으로 본래 정집9권 잡집6권 중에 잡집 권1-4의 1책이다.

확인하였다. 또한 규장각 소장본 중에는 1610년 최기남(崔起南)의 발문이 수록된 것으로 내제(內題)가 ‘연병실기조련도식(練兵實紀操練圖式)’인 책이 목판본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두 책이 비록 동일본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남은 서적 중에는 선조가 1596년에 간행을 명한 ‘진서’에 가장 가까운 책일 것이다.



<그림 1> 목활자본 『練兵實紀雜集』
(개인소장)



<그림 2> 『연병실기조련도식』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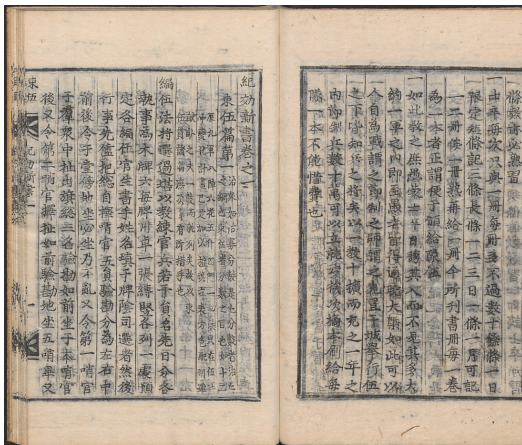
그리고 조선에서 간행된 『기효신서』와 『기효신서절요』는 두 종 모두 16세기말 이후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특별한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최소한 각 책마다 2종 이상의 이본이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서책 간행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았을 때 비교적 다양한 간행 층위를 보이는 것이다. 장서각, 규장각, 고려대, 충남대, 국립도서관, 프랑스 동양언어문명도서관(BULAC), 오사카부립 나가노시마도서관 등에 목판본과 목활자본으로 남아있다.

『기효신서』는 별집 4권을 합쳐서 18권 7책으로 남은 11항 20자의 목활자본이 잘 알려진 편이다. 이 책은 현종 5년(1664)에 당시 병조판서였던 김좌명이 재간행했다는 『기효신서』 활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올린 차자(笥子)에는 당본(唐本), 향본(鄕本) 각 1권을 구하여 병서강독(能麼兒) 당상(堂上) 및 무관(武官) 중에서 병서에 능한 자를 시켜 두 번 세 번 서로 대조하여 오류를 수정하게 하고, 또한 여기에 당본(唐本)에 수록되어 있던 신증팔진도식(新增八陣圖式) 및 『연병실기(練兵實紀)』의 내용 중에서 거영편(車營篇), 기영편(騎營篇)과 등단구수(登壇口授)로 별집 2권(2책)을 만들고 『기효신서』에 합쳐 한 질을 만들어 활자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¹⁷⁾ 이 기록은 14권 체제에

17) 『歸溪遺稿』 卷上, 「進紀效新書笥」.

서 별집 4권을 더한 18권 체재의 간본이 남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차차에는 2권으로 표현했지만 별집 4권 2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활자본 중에 9항 17자의 판식을 지닌 것으로 11항 20자 판식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책이 국립도서관(권7), 성암문고(권4), 계명대도서관(권11) 등에 흩어져 남아있다. 김좌명이 1664년 8월에 기효신서를 재간행하고 바칠 때 남긴 기록에는 계사년(1593) 뒤에 맨 먼저 훈국(訓局)의 군병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 방법은 실로 『기효신서』를 따랐고, 또 국내에 이를 인포하여 지금 70년이 되어 가는데 자주 변란을 겪은 바람에 거의 산실되어 없어졌다고¹⁸⁾ 하였으므로 14권 체재로 남은 책들이 70여 년 전에 간행했던 그 책의 모습을 보다 가깝게 담고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완결본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추정권대 이들 간본이 14권 체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기효신서』의 목판본으로는 간행년도를 확인할 수 없는 평안도 안영(安營, 安州의 옛 이름) 간본도 남아있다. 안영개간본은 10항 20자의 판식이며 11항 20자 판본처럼 상판구에 편명을 약칭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3> 11항 20자본 『기효신서(紀效新書)』
(1664년 추정 장서각 소장본)



<그림 4> 9항 17자본 『기효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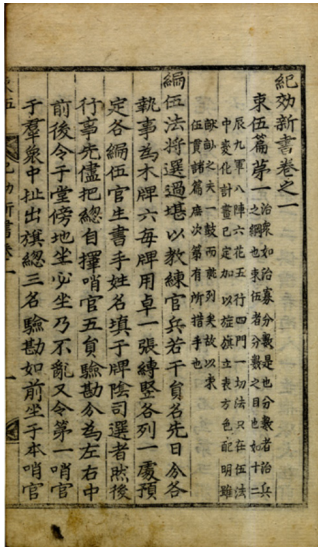
『기효신서절요』는 10항 17자의 규장각 소장본과 오사카부립 나가노시마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동일한 목활자본이다. 판식이 다른 10항 20자의 목판본은¹⁹⁾ 국립체육박물관 소장본이다. 10항 17자본

“... 願得紀效新書全本以相憑閱云 臣問於本曹 則元無此書 問於他局 亦無所有 遂求得唐鄉本各一件 令能麼兒堂上及武官中曉解兵書者 再三讎校 正其訛誤 且以唐本所載新增八陣圖式及練兵實紀中車騎營陣登壇口授等篇 以爲別集二卷. 合成一帙. 用活字印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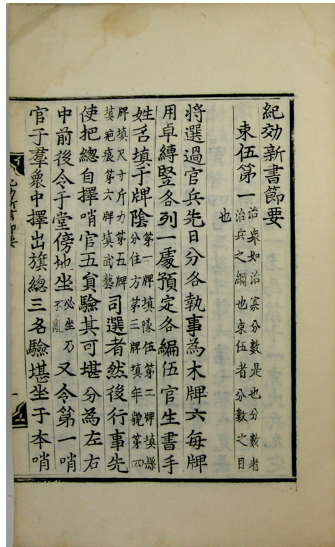
18) 『현종실록』 권9 현종 5년 8월 25일.

“兵曹判書金佐明進紀效新書 紀效新書者 皇朝名將戚繼光之所著也 癸巳之後 首設訓局軍兵 其制置之法 實遠乎此 且以印頒於國中 今垂七十年 屢經變亂 散逸殆盡.”

은 선조 36년(1603) 간본으로 추정되는 『신기비결(神器秘決)』 및 『진설(陳說)』과 향자수(行字數), 반곽(半廓)과 책의 크기, 목활자의 서체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이때를 전후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그림 5>
목판본 『기효신서』
安營(平安道 安州) 開刊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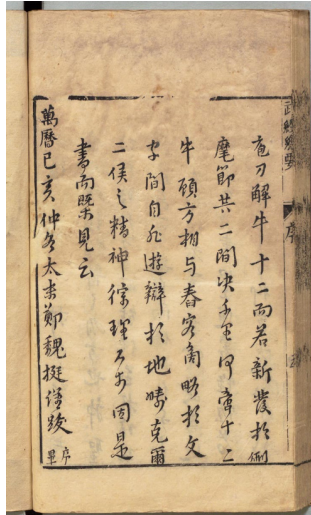
<그림 6>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오사카부립나가노시마도서관 소장본 韓10-46)



<그림 7>
『기효신서절요(紀效新書節要)』
(국립체육박물관 소장본)

한편, 비슷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경총요행군수지(武經總要行軍須知)』는 발문작성년도를 기준으로 1599년 간본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 책이다. 이 책은 여러 병서(兵書) 중에서 행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요점을 수록한 것인데, 송나라 증공량(曾公亮) 등이 송나라 인종(仁宗)~강정(康定) 연간인 1040년경에 칙명으로 편찬한 『무경총요(武經總要)』의 마지막 부분이다. 실제 금릉(金陵) 부춘당(富春堂) 간행의 명간본(明刊本) 『무경총요(武經總要)』로 살펴보았을 때, 총 20책으로 전집 22권과 백전기법(百戰奇法) 1권, 후집 21권과 행군수지(行軍須知)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에서 훈련도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책은 마지막의 행군수지(行軍須知) 2권으로 그 체재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정위정(鄭魏挺)이 작성한 발문까지도 동일하다. 현존본이 규장각과 프랑스 동양언어문명도서관(BULAC)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두 책은 동일한 판본임을 확인하였다.

19) 정탁의 『기효신서절요』에 의하면 이시말이 관찰사 겸 순찰사로 있을 때 이 책을 반포하고자 하여 안동부에서 인쇄하였다고 한다. 현존본이 서문은 남아있지 않으나 이때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책이다.
20) 『기효신서절요』의 내용과 편찬 배경에 대해서는 곽낙현, “조선후기 기효신서절요에 대한 검토,” 『동양고전연구』 42집(2011), 355-378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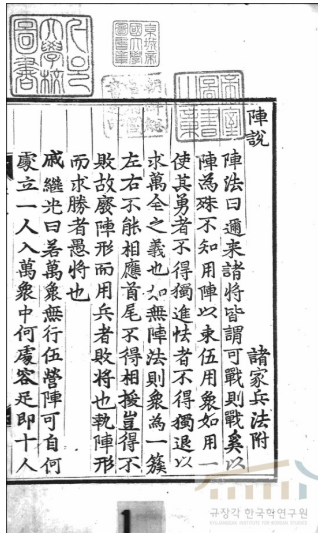
<그림 8> 명간본(明刊本) 鄭魏挺의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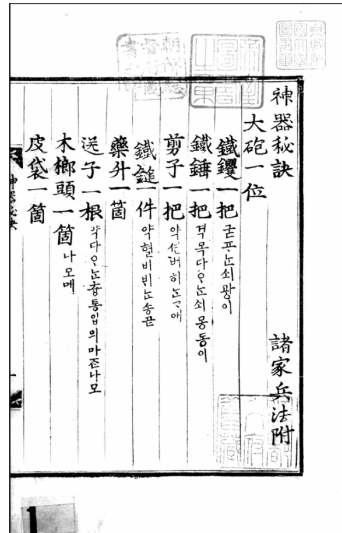
<그림 9> 금릉(金陵) 부춘당(富春堂) 간행의 명간본(明刊本) 『무경총요(武經總要)』 일본 米沢市立 米沢圖書館 소장본

조선본 『무경총요행군수지(武經總要行軍須知)』의 간행년도를 추정할 수 있는 책이 한효순(韓孝純 1543-1621)이 1603년(선조 36)에 편찬한 『신기비결(神器秘訣)』과 『진설(陳說)』이다. 한효순은 체찰부사(體察副使)였던 선조 29년(1596) 8월 21일에 훈련도감을 통해서 군사교련용으로 쓸 『기효신서』를 요청하여 내려 받기도 하였다.²¹⁾ 광해군 시기에 좌의정을 지낸 그는 함경도 도순찰사로 있을 때, 당시 신기(神器)라고 중요시하던 각종 화약병기의 제작 및 사용법과 고금 여러 병가(兵家) 요어를 수록한 책 『신기비결(神器秘訣)』과 함께 고금의 병서 중에서 진법(陣法)에 관한 글을 뽑아 엮은 『진설(陳說)』의 2종을 편찬하였다. 『진설』에는 5종의 기본진법인 팔진(八陣), 육화진(六花陣), 원양진(鴛鴦陣), 매화진(梅花陣), 삼재진(三才陣)과 분수(分數)와 형명(形名)을, 부록으로 제가(諸家)의 병법을 실었다. 5개의 진(陣)에 대한 해설은 『사률제강(師律提綱)』, 『진법(陣法)』 등의 책이나 이정(李靖), 척계광(戚繼光) 등의 설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권말 1603년 가을에 작성한 그의 발문에 의거해서 그 해의 간본으로 추정한다. 『신기비결』과 『진설』, 그리고 『무경총요행군수지』의 간행은 거의 동일한 시점에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규장각에 소장된 현존본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3종의 서적이 10행 17자의 항자수(行字數), 반곽(半廓)과 책의 크기, 목활자의 서체 등 형태가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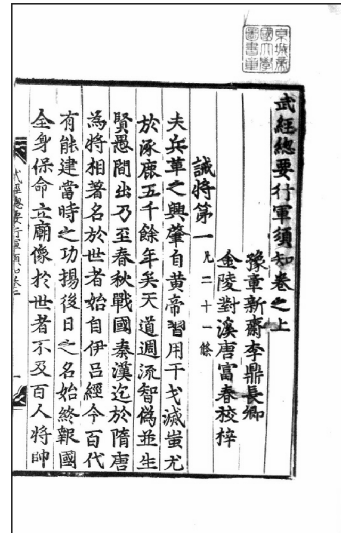
21) 『선조실록』 권78 선조 29년 8월 21일(병진).
 “訓鍊都監啓曰 體察副使韓孝純 要得紀效新書(中朝戚繼光所撰) 用以教軍 此則元戎幕府鍊兵之地 給送若干件 以爲講習之資 敢稟 傳曰 一件給送.”
 22) 옥영정, “군영의 활자와 인쇄문화,”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63-264.



<그림 10>
『진설(陳說)』
(규장각소장본 奎89)



<그림 11>
『신기비결(神器秘訣)』
(규장각소장본 奎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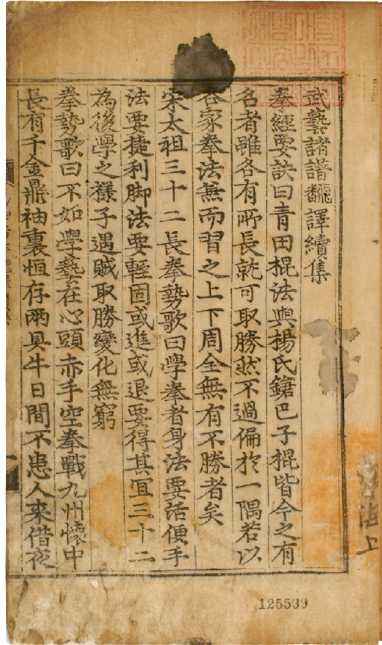


<그림 12>
『무경총요행군수지(武經總要行軍須知)』
(규장각소장본 奎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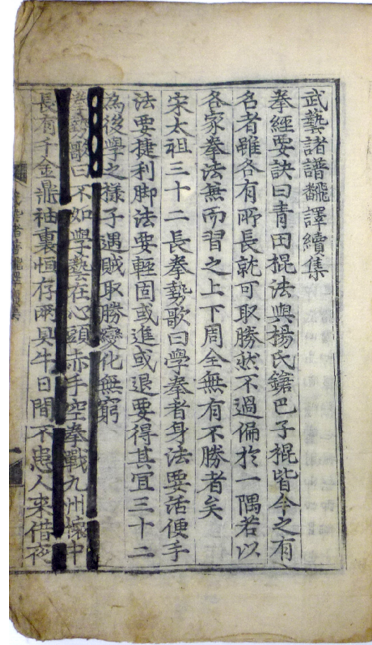
그 밖에 1608년에는 『동국병감』이 동일한 목활자로 간행되어 반사되기도 하였다. 1608년 9월과 12월에 묘향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사고에 반사된 책이 규장각,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3.2 『무예제보번역속집』

『무예제보』의 속집이라 할 수 있는 『무예제보번역속집』은 훈련도감 도청인 최기남(1559-1619)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본문은 권보, 청룡언월도, 협도곤, 구창, 왜검 등을 다룬 무예부분과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부분, 1610년 10월에 작성한 최기남의 발문 등으로 구분된다. 형식과 체제가 무예제보의 무예부분과 거의 같으며 앞서 언급한 『연병실기조련도식』도 최기남에 의해서 같은 해 5월에 편찬되었고 형태서지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므로 연관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이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1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에는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계명대 도서관 소장본과 국립중앙박물관본을 비교해보면 지질에서 조금 차이가 날 뿐, 인면의 상태나 결락 부분이 거의 동일하므로 같은 시기에 인쇄된 계명대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본은 본문의 제 10장이 결락되었다.



<그림 13> 계명대 소장본(보물1321호)



<그림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4. 『무예제보』 현전본의 형태서지적 비교

4.1 수원화성박물관과 프랑스 동양언어문명도서관 소장본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의 표지는 개장되지 않은 원 표지이고 1권 1책의 목판본이다. 전체 60장으로 목록 1장 본문 59장이다. 본문의 내용을 한문으로 기록하고 내용 일부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원 표지에 묵서(墨書)된 표제(表題)는 ‘武藝諸譜’이다. 『무예제보』의 판식을 보면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 22.8x14.9cm에 책 크기는 31.4x20.1cm, 본문에 계선(界線)이 있으며 향자수(行字數)는 10행 20자에 본문에 주(註) 없이 한글 언해 부분에 한자음만 작은 글자로 달았다. 판심(版心)에는 판심제(版心題)와 어미(魚尾) 그리고 장차(張次)가 있는데 판심제는 ‘武藝諸譜’, 어미의 형태는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 본문에는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전면 삽화이거나 본문의 내용 순서에 따른 설명식 부분 삽화가 수록되었다.

BULAC 소장본과 비교해 보면 표지 장황과 지질, 목판인쇄된 먹색의 농담(濃淡), 전후면(前後面)의 공격지(空隔紙) 등이 다를 뿐 나머지 본문내용, 판식 등이 거의 동일하다. BULAC 소장본의 종이 지질은 도침을 가한 상품(上品)의 종으로 밀도가 높은 편이며, 표지 또한 후대에 개장한 것이다.



<그림 15>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표지



<그림 16> 동양언어문명도서관 소장본 표지

BULAC 소장본은 국내의 기존연구에서²³⁾ 마이크로 필름 복제본을 바탕으로 소개되고 알려졌다.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은 1901년에 출간된 『韓國書誌』補遺版에서 처음으로 이 책의 서지목록을 작성하였다.

3689. 武藝諸譜

Mou yei tje po. — Sur les divers exercices militaires.

1 vol. in-folio. (L. O. V.)

Texte en chinois et en coréen (caractères chinois et *en-moun*), avec figures. A la fin, dédicace de présentation (1598) de Han Kyo 韓橋, auteur de la traduction coréen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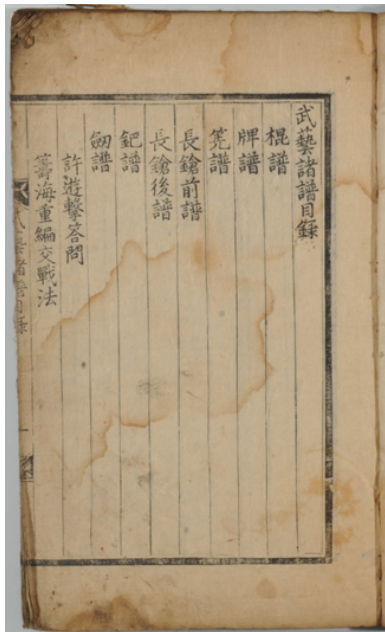
<그림 17> 한국서지에 수록된 무예제보
(번역문: 3689. 『무예제보』 1책. 2절판. L.O.V. COR.I.205. 한자와 한글 본문. 그림. 끝에는 한글본 저자인 韓橋의 헌사가 있다(1598).²⁴⁾

23) 박기동,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8호(강원대체육과학연구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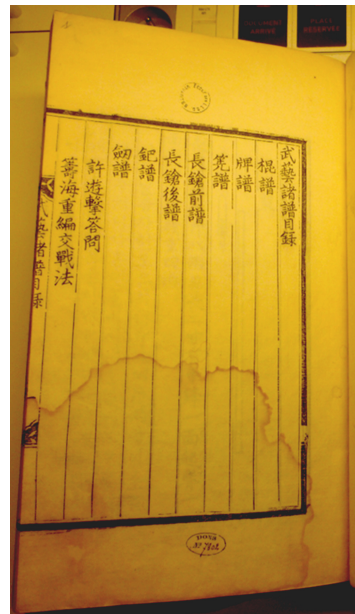
24) 모리스 쿠랑 저, 이희재 역, 『韓國書誌』 (서울: 一朝閣, 1994).

이 책은 모리스 쿠랑의 상관으로 1887년 한국의 첫 번째 프랑스 외교관으로 부임했던 빅토르 폴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1853-1922)가 수집하여 당시 동양어학교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모리스 쿠랑은 『무예제보』에 대해 BULAC 소장본임을 표시하였고(L.O.V.) 도서번호(COR.I.205.)를 기재하였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해 보면 BULAC 소장본 목록 광곽의 우변 아래 부분이 결락된 흔적이 더 크게 드러난다. 다른 계선이나 글자 획 등에 드러나는 나뭇결 등 매우 미세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만 확연히 구분될 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지질이 달라서 먹색이 얼어 보이지만 인쇄된 상태로 본다면 수원박물관 소장본의 인쇄 시점이 좀 더 일렀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BULAC 소장본의 권수제면에는 장서인을 제거하고 종이를 덧댄 흔적이 있으며, 본문의 제3장 대적도(大吊圖)의 글자도 종이를 덧대었다. 그리고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에는 본문 대봉(大棒)의 끝에 날(刀)부분을 필사하여 표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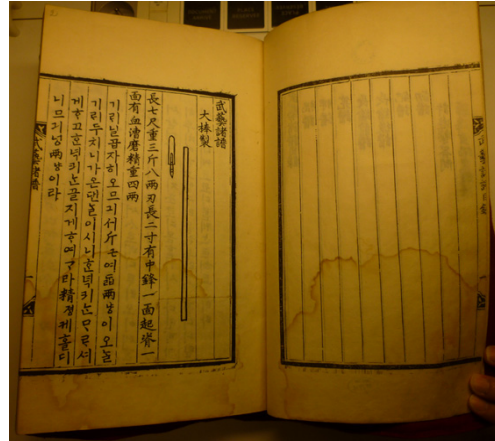
<그림 18> 목록의 변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그림 19> 목록 우측 변란의 결락부분
(BULAC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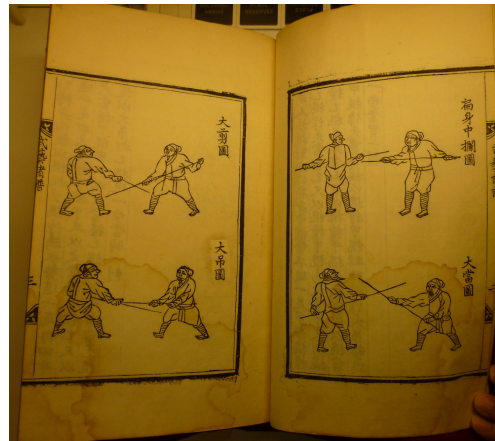
<그림 20> 권수제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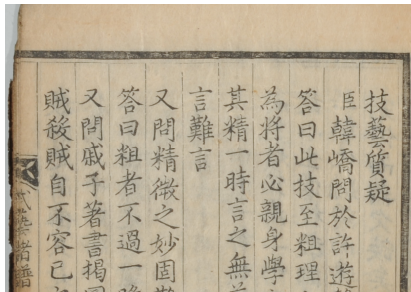
<그림 21> 권수제면 우측 아래 종이를 뒀던 부분
(BULAC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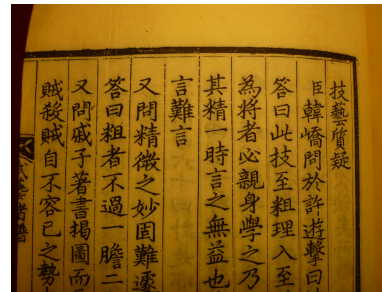
<그림 22> 본문의 제3장 대봉(大棒)의 끝에 날(刀) 부분을 필사하여 표시함(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그림 23> 본문의 제3장 대적도(大吊圖)의 글자를 도려내고 종이를 덧대어 다시 인쇄함(BULAC 소장본)



<그림 24> 본문 기예질의 부분의 인쇄상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그림 25> 본문 기예질의 부분의 인쇄상태
(BULAC 소장본)

비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새로 발견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은 동양언어문명도서관(BULAC) 소장본과 동일한 책판으로 인쇄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인쇄시점은 거의 동시인 것으로 보이지만 판식과 인면(印面)에 보이는 미세한 나뭇결의 차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이 약간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4.2 초간본과 중간본

『무예제보』 중간본은 1714년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훈국대장 이기하(李基夏)에게 중각(重刻)하게 하여 간행한 책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으로 1권 1책의 목판본이다. 전형적인 저지(楮紙)로 도침되었고, 전체 63장이며 목록1장, 본문 59장, 발문3장이다. 본문의 내용을 한문으로 기록하고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기술하였다.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도가 있으며, 그 내용은 한글의 쓰임까지 초간본과 같다. 형태적인 특징은 사주단변에 반곽 24.0x15.5 전체 10행 20자 판식은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이고 판심제는 “武藝諸譜”이다. 본문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권말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작성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발문은 그의 문집인 소재집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중간본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실물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略)… 만력 임진년에 명나라 군사가 왜(倭)를 정벌하였는데, 그 중 형초, 기이한 제주, 훌륭한 기술로 싸우는 자가 많았습니다. 대개 적소보(戚少保)의 유법(遺法)을 전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격장군 ‘낙상지’가 우리 병사들에게 포수와 살수의 기술을 익힐 것을 힘써 권유했으니, 이것이 훈국의 창설된 이유이며, 이 보(譜)도 이때 인행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여년간 포수는 거의 온 나라에 두루 있으나, 단병(短兵)의 쓰임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직 훈련도감에만 살수 육초(六哨)가 있으며, 다른 군문(軍門)에는 겨우 수십인이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무예를 시험하기는 하나, 보(譜)는 없어서 전하지 않으니, 교사가 서로 말로 전수하여 구법(舊法)을 많이 잃었습니다. 근래에 어떤 사람이 이 보(譜)를 금화현(金化縣)에서 얻었다고 하여 제가 훈국대장 이기하(李基夏)에게 중각(重刻)하여 오래도록 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살수의 무예를 가르쳐서 그 구법을 회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후(李侯, 이기하)가 기꺼이 듣고 간행하여 지금 신본(新本)을 보여주며, 저에게 그 일에 대한 지문(識文)을 지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다만 제가 일찍이 군려(軍旅)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 어찌 이 보(譜)의 득실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中略)… 이후(李侯, 이기하)가 지금 구보(舊譜)를 얻고서 과연 좌작격자(坐作擊刺)의 방법을 회복하고 바로 잡아 환위(環衛)의 형세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장차 오늘의 마음을 저버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보(譜)는 처음 갑오년에 완성되어, 재주(再周)된 올해에 중각되었으니, 아마도 정해진 운수[有數]가 있어서 진실로 과거와 지금의 흥감(興感)되는 듯합니다. 명나라 장수가 우리 병사를 가르쳐 무예를 익히게 하는 것을 어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책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책) 뒤에 글을 짓습니다.²⁵⁾

25) 李頤命, 『疎齋集』 卷10, 武藝諸譜跋.

“(前略)… 萬曆壬辰。天兵征倭。其中多荆楚奇才善技擊。蓋傳戚少保遺法云。遊擊將軍略尙志。力勸我兵學習砲手殺手之藝。此訓局之所以創設。而此譜之印行於其時也。至今百有餘年。砲手幾遍一國。而短兵之用殆廢。獨訓局有殺手六哨。他軍門廬有數十人。雖以時藝。譜亡不傳。教師之相口授。多失其舊法。近有人得此





이처럼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중간본은 1594년(선조 27) 갑오년에 1차 편찬되고 1598년(선조 31) 무술년 10월에 최종 완성하여 간행한 『무예제보』를 바탕으로, 1714년(숙종 40)에 새로 중간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간본 『무예제보』가 척계광의 『기효신서』가 유입되어 조선식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책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중간본 『무예제보』는 120년이 지난 후에도 거의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의 무예서로 활용된 책으로서 그 계보를 잇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원화성박물관의 초간본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중간본을 형태서지적으로 비교해 보면 전체 판식과 본문의 판화, 총도 등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먼저 판식은 초간본이 사주쌍변의 광곽인데 비해 중간본은 사주단변이고, 판심의 어미는 상하내향삼엽화문과 상하내향이엽화문으로 각기 다르다. 이는 17세기와 18세기 판심의 어미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초간본 제39장의 후면은 계선이 일부 생략되기도 하였다. 무예동작과 무기의 쓰임을 표현하는 본문의 판화도 초간본과 중간본이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물의 수염유무, 표정, 패음각(牌陰刻), 창 의 흑백 등 판화의 인물이나 무기의 묘사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제45장부터 제48장 사이의 무예묘사는 판화의 구도가 달라지거나 균검향적도, 식검향적도처럼 무기를 든 자세나 신체의 위치가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선세총도, 파세총도, 기세총도, 장창후보제세총도, 장창후보제세총도 등 총도에서는 초간본에는 빠짐없이 표시되었던 동작연결선이 중간본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하여 그림과 함께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차이점	초간본(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중간본(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판식의 차이 (광곽의 모양)		

譜於金化縣者。余亟請訓局大將李侯基夏重刻而壽其傳。又欲其校殺手之藝。以復其舊。李侯樂聞而鉞梓。今示以新本。仍請余識其事。顧余未嘗學軍旅。何能論此譜得失…(中略)…李侯今獲舊譜。果能復正其坐作擊刺之法。以壯環衛之勢。庶幾無負天將當日之心矣。嗚呼。此譜。初成於甲午之歲。重刻於再周之今年。疑若有數存焉。固已興感於今昔。而天將之教我兵習藝。何可復見也。遂撫卷流涕而題其後”

차이점	초간본(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중간본(국립한글박물관 소장)
<p>판식의 차이 (계선유무, 판심의 어미모양)</p>		
<p>판화의 인물묘사 무기묘사 차이, 수염유무, 표징, 牌陰刻</p>		
<p>판화의 구도차이</p>		

차이점	초간본(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중간본(국립한글박물관 소장)
<p>판화의 구도차이 (자세의 모양이나 위치가 다른 것, 균감향적도, 식감향적도)</p>		
<p>종도의 차이 (선세종도, 파세종도, 기세종도, 장창후보제 세종도 등에 표시된 연결선 유무)</p>		

5. 맺음말

전통시기에 서적을 간행하는 방식에서, 처음 이루어진 초간본의 실체와 그 배경을 파악하는 작업은 초간 이후 이어지는 중간(重刊), 후쇄(後刷), 그리고 증보(增補), 유통(流通) 등의 관계 때문에 서지학뿐만 아니라 각 서적의 관련 주제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간본 『무예제보』의 서지학적 가치는 조선 후기 서적간행활동이 지극히 어려웠던 시점에 간행된 인쇄본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무예서일 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병법서로 처음 간행된 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편찬되는 각종 병법서의 간행방식이나 판식, 구성체제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무예제보』라는 책의 간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배경적인 사항과 간행과정, 그리고

현전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와 기록자료를 토대로 점검하고 현전하는 관련자료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초기 판본에 대한 고증은 자료의 실상을 정밀하게 파악한 토대 위에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먼저 판본이 지니는 서지적 특징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각 문헌에 담긴 내용의 실제 인출 시기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BULAC 및 한글박물관 소장본과의 비교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풀리지 않는 훈련도감의 인쇄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를 『무예제보』를 통해서 풀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무예제보』의 간행배경을 살펴면서 드러난 실마리를 바탕으로, 확정하기 어려웠던 훈련도감 설치 이후 진행된 서적인쇄의 시작점이 『기효신서』라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로 간행이 이루어진 몇 가지 병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두 연관성이 있으며, 그 중에 『무예제보』는 조선의 방식으로 변화한 최초의 무예서로서 위상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훈련도감의 인쇄활동 관련 연구에서는 목활자본 위주의 간행활동에 주로 연구범위가 설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목판본을 포함하는 인쇄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군사환경의 변화와 서적간행이라는 주제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지속적인 발굴과 비교연구를 통해서 『무예제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된 여러 병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는 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곽낙현. “조선후기 기효신서절요에 대한 검토.” 『동양고전연구』 42집(2011). 355-378.
- 곽낙현. 『조선의 칼과 무예』. 서울: 학고방, 201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무예자료집성』.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김동소. “『무예제보』 해제 색인 영인.” 『한국말글학』 17(2000). 451-527
-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7.
- 나영일. “『기효신서』, 『무예제보』, 『무예도보통지』 비교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6권 4호(1997). 9-23.
- 나영일, 노영구, 양정호, 최복규. 『조선중기무예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노영구. “조선 증간본 기효신서의 체제와 내용.” 『軍史』 36(1998). 101-135.
-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 박기동.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8호(강원대체육과학연구소, 1994). 101-110.
- 박기동.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무예도보통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 배우성.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2001). 331-354.
- 심승구. “임진왜란 중 무예서의 편찬과 의미 - 『무예제보』를 중심으로.” 『논문집』 26(한국체육대학, 2003). 289-330.
- 심승구. “한국무예의 역사와 특성.” 『軍史』 43(2001). 233-296.
- 심승구. “조선시대의 무예사 연구.” 『軍史』 38(1997). 101-134.
- 옥영정. “군영의 활자와 인쇄문화.”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한양의 문화』.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49-281.
-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軍史』 51(2004. 4). 151-183.
- 최복규. “조선에 도입된 기효신서의 판본.” 『한국체육학회지』 50권 5호(2011). 29-37.
- 최형국. 『병서, 조선을 말하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8.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WooSung. 2001. “The background of the compilation of Muyeobotongji (武藝圖譜通志, A Collection of Martial Arts with Descriptions) in late 18th Choson Dynasty.” *Jindanhakbo*, 91: 331-354.
- Choi, BokKyu. 2011. “Issues on the Versions of Jixiaoxinshu Introduced to Joseon Dynas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5): 29-37.
- Choi, Hyung Kook. 2018. *A book on military science, speak of Joseon*. Seoul: character and thought Press.
- Chung, HaeEun. 2004. “Chosun’s Early-days Experience with Short-arm weapons(短兵器) during the Imjin-year war period, and the Publication of the 『Muyae Jaebo(武藝諸譜)』.” *Military History*, 51: 151-183.
- Kim, DongSo. 2000. “Muye Jebo (The Martial Arts Report) exegesis, index, photoprint.” *Hankukmalgeulhak*, 17: 451-527.
- Kim, JunHyuk. 2007. *A study on Jangyongyoung of the age of King Cheongcho in the Chosun Dynasty*. a doctoral dissertation at JoongAng Univ.
- Kwak, NakHyun. 2011. “The Study of {Gihyosinseojeoryo} in late Joseon Dynasty.”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42: 355-378.
- Kwak, NakHyun. 2014. *The Sword and Martial art in the Chosun Dynasty*. Seoul: Hakgobang.
- Na, YoungIl. 1997. “A Compartive Study of Kihyosinseo, Muyejebo, Muyeobotonggi.” *Korean*

-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36(4): 9-23.
- Na, YoungIl, Roh, YoungKoo, Yang, JeongHo, & Choi, Bok Kyu. 2006. *A Study on the Illustrated Manuals of Military Arts in the Mid-Joseon Period*. Seoul: SNU Press.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4. *Collection of Korean Martial Arts Materials*. Seou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Ok, YoungJung. 2018. "the type and print culture of military camp." *Culture of the Central Military Region and Hanyang in the late Joseon Period* (pp. 249-281).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ress.
- Park, KiDong. 1994. "A discovery and its value of Muye Jebo (The Martial Arts Report)."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 and Science*, 18: 101-110.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Physical Science.
- Park, KiDong. 1994. *A Study on the History of Martial Arts in the Late Joseon Period-Focused on the Formation Process of Muyedobotongji*. a doctoral dissertation at Sungkyunkwan Univ.
- Roh, YoungKoo. 1998. "System and Content of Kihyosinseo an enlarged edition of the Joseon Dynasty." *Military History*, 36: 101-135.
- Roh, YoungKoo. 2002. *A Study on the Military Calligraphy and Transitional Methods in the Late Joseon Period*. a doctoral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
- Shim, SeungKoo. 1997. "A Study on the History of Martial Arts in the Joseon Dynasty." *Military History*, 38: 101-134.
- Shim, SeungKoo. 2001.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Military History*, 43: 233-296.
- Shim, SeungKoo. 2003. "The Compilation and Meaning of Martial Art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ocusing on "Muyejebo"." *A collection of papers*, 26: 289-330.

